

김일성전집

12

(1950.6

1950.6

12

김일성전집

12

(1950.6-1950.12)



남조선 애국적정계인사들의 입북을 안전하게 보장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내무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
국장에게 순지시 1950년 9월 17일

현재 서울에 있는 남조선의 이름있는 여러 애국적정계인사들이 우리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에 들어온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망대로 평양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군병력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서울 일대에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거기에 있는 남조선 애국적정계인사들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 정계인사를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그들이 적들에게 박해를 받고 참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최승오, 임향설 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인사들을 염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리승만 괴뢰도당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우리가 내놓은 남북 협상방안을 지지하였으며 평양에서 소집된 4월 남북 협의회에 참가하여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남북협의회의 후 서울에 돌아가서도 연석회

의 결정을 치지하는 정당, 사회단체 인사를 구국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미군철거와 평화적 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민군대의 반공격이 개시되자 대주하는 적들을 뛰어간것이 아니라 서울에 남아서 미체와 리승만 괴뢰도당이 범죄적인 전策을 도발한데 대하여 규탄하면서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애국인사들을 평양으로 데려올 때 서울에 있는 안재홍, 오하영 선생을 비롯하여 일부 의사들로 표명한 《국회의원》들과 리승만 괴뢰도당에게 서로 우회되었던 전기 《국회》의 《소강과 의원》들도 다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때 친미반공의 일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리승만 괴뢰도당과 결별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남조선의 애국적정계인사들이 비록 우리와 적진은 다르지만 그들의 민족적 향심과 애국적 지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물문하고 손잡고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내무성에서는 이번에 입북하는 남조선 정계인사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 정계인사들이 평양으로 들어올 때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 선생과 같은 이름있는 정치인들과 낸로한 분들은 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적기의 폭격이 심하므로 자동차에 위장을 잘하고 밤에 떠나지 하니 예비 자동차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에서는 남조선 정

기인사를 이 경양에 도착한 다음 그들에 대한 조영사업을 잘 조
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일본하는 남조선 정계인사를에게 애국적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주며 그들이 적의 폭격과
신체를 막지 않고 후방 기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공화국남반부 도당위원장들과
서울시당 위원장, 대전시주재
당중앙지도부 책임자 앞

1950년 9월 22일

제전에 패전을 거듭한 미제침략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자
들의 위신을 만회하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망을 기어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
천에 상륙하려고 할 때부터 영웅한 인민군대는 적군과 결사전
으로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여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상
륙한 적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있다.

서울과 인천 인민들은 경인지방에서 용감성을 발휘하여 싸
우는 인민군대를 적극적으로 원호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영웅적
으로 싸우고 있다.

조국 해방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형편에 처한 금일에
있어서 적의 기계화된 대병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인민군부대
들이 전략상으로 일부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조직적 회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남반부 도당위원장들과 서울시당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당직임무들을 신속히 또한 과감히 실행할 것을 지
시한다.

1. 당단체들이 우선 지하에 들어갈 것이며 견결한 간부들과
열성자당원들을 굳게 결속하여 자기 지역에 머물러있으면서 당
사업을 계속할 것.